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995호 현대불교 29
2014년 6월 4일(음 5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8년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둔다는 일념으로 진실하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남): 저희들 생활에서 신행의 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큰스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인공 믿을 하나만 가지고 그냥 안으로 녹이고 들어가면 그걸로써 모든 것이 다 끝이지,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은 다 군더더기이고 사족인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업식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저희들의 녹이지 못한 그 인연으로 그냥 모르게 누가 되고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혼상제 같은 중요한 예법 중에서도 제례, 제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내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 말씀대로 그냥 우주떡 하나 놓고 물 한 그릇 놓고 꽃 한 송이 놓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도, 그 뒤에 구체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걸 또 몰라서 막상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양을 할 때에 선원에서는 합창하고 공양을 잘하면서 나가서는, 기독교인들은 참 잘하는데 우리는 잘 안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합장을 먼저 하는 기독교인들 보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주인공 생각이 뒤늦게 나거든요. 그렇지만 행이 바로 이렇게 잘 나와지질 않아서 그렇게 마음은 뻗으면서도 제때 제때 발휘가 안됩니다.

또 우리들이 선원에 들어올 때부터 법당에 앉을 때까지의 여러 가지 예법들, 하다못해 절하는 자세도 참 다양 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법도 하나의 행의 규범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믿음을 더욱 더 공고하게 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요식일까요, 절차랄까요, 그러한 행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스님께서 문서로 하시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큰스님: 웬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하하... 그런데요, 세상살인 말이 많죠. 수억걸을 거지면서 그 습관되고 찌든 문제들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놔야 되는데, 놓다가 못 놓다가 놓다가 못 놓다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게 조금 미흡하구나.' 할 때는 거기서 체험을 좀 하게끔 합니다. 자기 그 근본에서 말입

니다. 그리고 또 이끌어 주는 마음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하고서 그 줄을 잡고, '아, 이렇하면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곤 그 줄을 잡고, 하나를 잡고 갑니다. 가다 보면 엉뚱하게 또 딴 걸로 돼 가지고 딴 거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건 왜 그러냐. 세상만사가 그 용도가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한 용도의 한 굴림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용도가 오든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려서 자기네가 지혜를 날아서 이게 작용하는 거지, 어떻게 그거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네 스승을 네가 스스로 찾아라 이겁니다. 네 스승을 네 스스로 찾는다면 그 안에서 다 걸잡이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서 굴리는 도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딱지 않던 것도 자기가 먹어 봐야 그 맛을 알듯이 본인이 먹어 보지도 않은 맛을 어떻게 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용도대로, 닥치는 대로 굴려라.' 하는데, 그것이 용도에 따라 굴러가는 거죠. 아픈 것도 그냥 주인공에게다 굴려서 하면 그게 약사가 되고, 굴림이 이렇게 자꾸 바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인공은 하나인데, 아픈 거는 아픈 것대로 통신이 돼서 약사가 돼 주고,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주인공에서 입자가 나와서 조절해서 관세음이 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자라는 말을 안 하고 보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즉, 이름이 보살이요, 바로 그것이 법신(法身)이요, 그것이 화신(化身)이요, 부처님의 마음 자체가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제각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 주인공은 하나인데, 그 주인공 속에서 천차만별의 이름이 나오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런 말입니다. '주인공' 하면 일체제불의 마음 전체가,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한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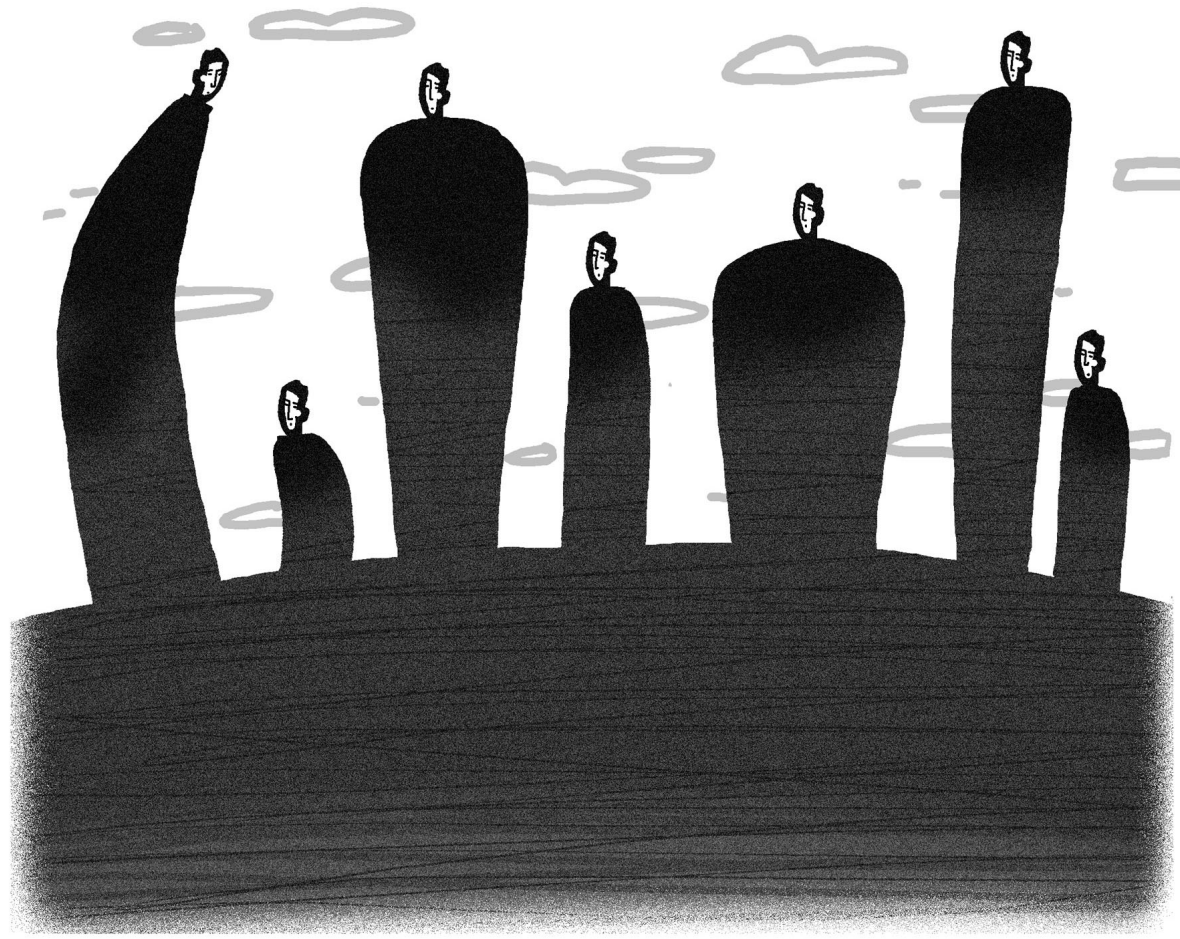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합쳐지는 연고입니다. 그렇게 합쳐지는 그 마음속에서 바로 '내가 아픕니다.' 하니까 거기서 그 마음이 통신이 돼서, 즉 말하자면 약사 보살이 탁 응신(應身)으로서 응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서 병명이 나와야 그 밑의 간호사들이 다 움직여주죠? 통신이 되어 보살들이 움직여주죠, 응신으로서. 그러니까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공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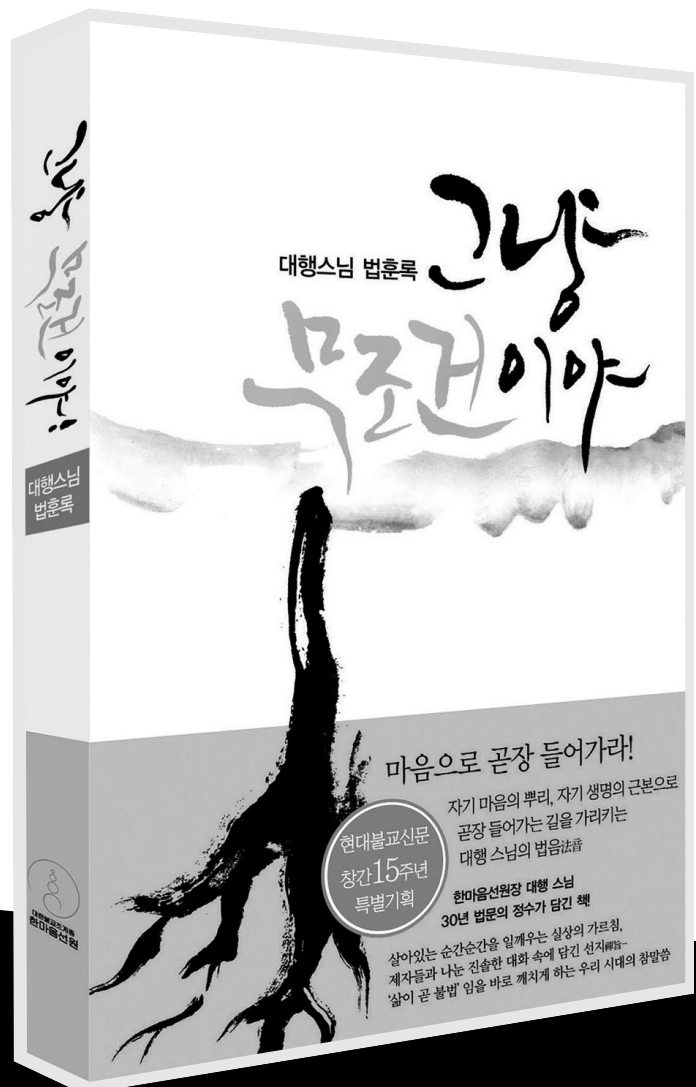
그래서 조심할 건 바깥으로만 꼬달리지 말라 이거죠. 부처님도 그러셨지만 내 생각으로, 옛날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지어서 지금 그냥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각자 자신을 믿어야지, 너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그건 마구니의 짓이니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각자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두 각자 나를 믿어야지' 요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전부 마구니의 짓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니, 모두 예수님 하나로 그냥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껍데기를 찾아 들어간 거죠.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자기의 마음이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도 돌이 아니게 통신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똑바로 '각자 너희들의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가 허깨비 같은 일이고, 모두가 꿈과 같고 바람과 같고 도깨비 같으니라.' 이러셨거든. 그럼, 두 번째 끝났습니까?

질문자(남):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회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고난과 액난을 바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믿고 놓고 관(觀)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고가고 돌아돌아 어떠한 고난이나 액난이 그냥 사라져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고,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회향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막상 고난과 액난이 닥칠 때는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해서 온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어차피 겪어야 될 고난이나 액난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공부의 재료고 스승이다. 스승님이 나를 가르쳐 주러 오셨다.' 하는 생각을 내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그 경계가 하나의 회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고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삼